

모두의 구름 관측소

하늘 사진 한 장으로 우리 동네 하늘상태 예보를 검증하는 시민참여 서비스

모두의 AI 실험실 바이브코딩으로 제작 · 코딩 경험 없이 대화만으로 · 기상청 초단기예보 API 연동

01 문제

기상청이 알려주는 '하늘상태'(맑음·구름많음·흐림)는 예보값만 있고, 실제 그 시각 하늘이 어땠는지 기록한 관측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동관측장비는 구름을 보지 않고 사람의 목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관측이 드문 산간·농촌 일수록 예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02 AI 활용

웹 개발 경험이 없어 바이브코딩에 한국어로 요청만 했습니다. 하늘을 촬영하면 구름 종류·높이·운량을 판정하고, 같은 시각 그 위치의 기상청 예보를 불러와 비교하는 웹앱을 약 일주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GPS를 기상청 격자로 변환하고 전국 읍면동 3,838곳을 지원합니다.

03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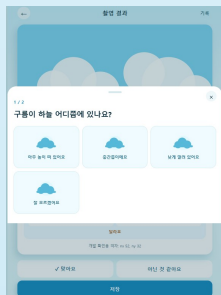
일주일 만에 동작하는 시제품이 나왔고, 기획이 머릿속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검증됐습니다. '권운·고층운' 목록에서 고르게 하려던 설계가 일반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들어 보고 알았습니다. 이름 대신 높이와 모양을 묻는 2단계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04 배운 점

AI에게 맡길 일과 사람이 원본을 확인할 일은 다릅니다. 전국 지역 목록을 만들게 했더니 항목이 빠지고 좌표를 지어냈습니다. 목록이 빠진 건 보이지만 좌표가 틀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정보 파일을 직접 받아 넣었습니다.



예보 비교 화면



쉬운 2단계 질문



전국 관측 기록

지금까지 확인된 것

- 기상청 초단기예보 API 실호출 검증 완료
- GPS → 기상청 격자 변환 정보 대조 검증
- 전국 읍면동 3,838곳 지역 선택 지원
- 예보와 실제 하늘이 어긋난 사례 포착